

일반 논문

아시아 패러독스(Asian Paradox)와 인도태평양전략

: 상업적 평화론 대 상호의존의 무기화

이왕희 (아주대)

국문요약

경제-안보 연계의 관점에서 이 논문은 경제적 상호의존이 증가함에도 불구하고 지정학적 갈등이 해결되지 않는 아시아 패러독스를 검토한다. 상업적 평화론은 경제적 상호의존이 심화되면 평화가 촉진된다고 설명한다. 이 논리에 따르면 아시아 패러독스는 경제가 안보를 압도하는 방식으로 해소된다. 반면 현실주의는 상호의존이 항상 갈등을 증폭시킬 수도 있다고 반박한다. 이 경우 경제가 안보에 종속되는 방식으로 아시아 패러독스가 해결된다. 2018년 무역전쟁 발발 이후 미국은 비대적인 상호의존을 활용하여 중국에 다양한 경제제재를 부과하였다. 반도체 수출통제와 국제금융 결제망 접근 제한 등과 같은 상호의존의 무기화에도 불구하고 미중 사이의 무역과 투자는 줄어들지 않고 있다. 미국뿐만 아니라 미국의 동맹국인 일본과 한국, 그리고 대만까지 대중수출은 감소세가 아니라 증가세를 보여주었다. 무기화된 상호의존성의 핵심 지표인 반도체 수출도 증가하는 추세를 지속하고 있다. 적어도 현재까지 미중 전략 경쟁이 무역과 투자에 미치는 효과가 제한적이라는 사실은 보면, 아시아 패러독스는 유지될 것으로 전망된다.

주제어: 경제-안보 연계, 상업적 평화론, 상호의존의 무기화, 미중 경쟁, 인도태평양경제 프레임워크

I. 머리말

냉전 체제의 종식 직후 세계화를 통한 경제교류의 확대가 평화로 귀결될 것이라는 기대가 충만하였다. 그러나 이런 기대는 전 세계적 차원에서 균등하게 실현되지 않았다. 유럽에서는 경제협력의 확대·심화를 통해 정치통합을 제도화하였다. 반면, 아시아에서는 경제 교류의 진전에도 불구하고 분쟁이 지속되고 있다. 이렇게 유럽과 달리 아시아에서 경제적 상호의존이 정치적 긴장 완화로 이어지지 않는 현상은 아시아 패러독스로 불리고 있다.¹⁾

아시아 패러독스는 경제안보의 연계가 아닌 괴리를 전제하고 있다.²⁾ 냉전시대와 유사하게 탈냉전 이후 괴리되어 있었던 경제와 안보가 미중 무역전쟁 이후 다시 연계되고 있다. 자유주의 전통에 있는 상업적 평화론은 경제적 상호의존의 증가가 갈등을 억제하기 때문에, 아시아도 유럽과 유사하게 평화체제가 등장할 수 있다고 설명한다. 이 논리에 따르면 아시아 패러독스는 경제가 안보를 압도하는 방식으로 해소된다. 반대로,

1) Robert Manning, "The Asian Paradox: Toward a New Architecture," *World Policy Journal*, vol. 10, no. 3 (1993), pp. 55-64.

2) Avery Goldstein and Edward D. Mansfield, *The Nexus of Economics, Security, and International Relations in East Asia* (Stanford: Stanford University Press, 2012); T. J. Pempel, ed., *The Economy-Security Nexus in Northeast Asia* (London: Routledge, 2013); Joung Kun Choi, "Crisis Stability or General Stability? Assessing Northeast Asia's Absence of War and Prospects for Liberal Transition," *Review of International Studies*, vol.42 (2016), pp. 287-309; 정성철, 「아시아 패러독스: 동아시아 경제협력과 안보갈등」 『세계정치』 제21권 (2014), 19~52쪽; 이승주, 「아시아 패러독스(Asia Paradox)를 넘어서: 경제적 상호의존과 제도화의 관계에 대한 비판적 검토」 『한국정치외교사논총』 제36권 2호 (2015), 167~198쪽; 김기석, 「경제안보연계분석: 동아시아에 대한 적실성의 점검」 『한국과 국제정치』 제33권 2호 (2017), 1~34쪽.

상호의존의 무기화는 경제적 상호의존이 군사적 충돌을 반드시 감소시키지 않으며 반대로 갈등을 야기할 수도 있다는 현실주의 시각의 연장선상에 있다. 이 경우 경제가 안보에 종속되는 방식으로 아시아 패러독스가 해결된다.

미중 전략 경쟁이 가속화되면서 상업적 평화보다는 상호의존의 무기화가 더 많이 주목받고 있다. 2018년 발생한 미중 무역전쟁 이후 트럼프 행정부는 대중 무역과 무역적자를 동시에 감축하기 위해 중국에 보복관세를 부여하는 것은 물론 위해 대중 반도체 수출을 통제하였다. 더 나아가 바이든 행정부는 중국 중심으로 편성된 아시아 공급망에서 중국을 고립·배제하기 위한 통상산업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미국은 인도태평양전략의 일환인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IPEF)을 통해 동맹국인 일본, 한국, 호주 및 동반국인 대만에 대중 압박에 동참을 요구하고 있다.

중국은 미국의 탈동조화 전략에 쌍순환(双循环) 전략으로 맞대응하고 있다. 상호의존의 무기화로 중국이 고립화되지 않기 위해 중국은 첨단기술제품의 수입대체를 위한 산업정책을 확대하는 동시에 동아시아 공급망을 중국 중심으로 재편하려고 시도하고 있다. 이를 위해 중국은 역내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을 주도적으로 참여하고 미국을 대신해 일본이 선도하는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에도 가입을 신청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은 경제적 상호의존도가 높은 교역국과 군사안보적 충돌을 불사하고 있다. 중국은 남중국해와 동중국해에서 일본, 대만, 베트남, 필리핀,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등과 대치하고 있으며, 히말라야산맥을 둘러싸고 있는 인도와 충돌하였다. 이러한 중국의 전랑(战狼)외교가 패권 전이 기간에 한정되는 일시적인 현상인지 아니면 중국적 특수성을 반영한 예외적인 사례인지는 아직 분명하지 않다.³⁾

이런 배경에서 이 논문은 경제-안보 연계의 관점에서 아시아 패러독스

를 검증한다. 2018년 무역전쟁 발발 이후 미국이 중국에 대해 상호의존을 무기화하였지만, 양국 사이의 무역과 투자는 감소하지 않았다. IPEF에 참여하는 미국, 일본, 한국은 물론 중국과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킨 대만의 대중 무역은 줄어들지 않고 늘어나고 있다. 대만의 경우 수출통제 대상인 반도체의 대중 수출도 계속 증가해 2021년 최대치를 기록하였다. 적어도 현재까지 지정학적 갈등이 무역에 미치는 효과가 제한적이라는 사실은 보면, 상호의존의 무기화에도 불구하고 상업적 평화론이 완전히 부정되었다고 평가하기 어렵다. 이런 추세가 지속된다면, 아시아 패러독스는 유지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하 논문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2절에서는 무역과 안보 관계를 상업적 평화와 상호의존의 무기화를 중심으로 논의한다. 3절에서는 미중 통상관계의 대립 구도를 RCEP, CPTPP, IPEF의 비교를 통해 분석한다. 4절에서는 무역전쟁 이후 통상관계의 변화 추이를 총 교역액, 교역 비중 및 반도체 사례를 통해 검증한다. 마지막 절에서는 분석 결과를 요약하고 정책적 함의를 모색한다.

3) Michael Mandelbaum, *The Rise and Fall of Peace on Earth*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2021), pp. 45-95; Jiakun Jack Zhang, "Is China an Exception to the Commercial Peace?" (Ph. D. dissertation, UC San Diego, 2018)

Ⅱ. 무역-안보 관계

: 상업적 평화 대 상호의존의 무기화

경제적 상호의존이 전쟁과 평화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다양한 이론적 시각이 있다. 국제경제학에는 자유주의, 신맑스주의(Neo-Marxist), 현실주의 및 무역기대(trade expectation)이론이 있다. 자유주의는 상호의존이 전쟁 가능성을 약화시킨다고 주장한다. 무역에 참여하는 집단은 통상력의 후생 효과를 극대화하는 데 중점을 두기 때문에 군사력을 활용하는 전쟁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다. 강대국이나 약소국 모두에게 전쟁은 후생을 감소시키기 때문에, 상호의존의 효과는 그 구조—즉 대칭적이거나 비대칭적—에 큰 영향을 받지 않는다. 반면, 현실주의는 상호의존이 전쟁 가능성을 상승시킨다는 입장을 가지고 있다. 상호의존은 국가를 취약하게 만들기 때문에 전쟁의 위험 요소이다. 이 취약성을 보완하는 주요 수단은 군사력이다. 신맑스주의는 통상력을 중시한다는 점에서는 자유주의, 전쟁 가능성에서는 현실주의와 유사한 논리를 가지고 있다. 중심부의 자본주의 국가는 저렴한 원자재 조달, 새로운 수출시장 개척, 잉여자본 투자처 확보를 위해 주변부 국가를 침략한다는 것이다. 즉 이 이론에 따르면 상호의존의 증가는 전쟁 가능성의 증가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마지막으로 무역기대이론은 강대국의 시각에서 통상력과 군사력의 결합을 강조한다. 강대국은 세계 시장에서 가장 저렴한 원자재와 노동력을 활용하기 위해 무역을 많이 한다. 무역이 원활하게 이뤄지도록 보장하기 위해 강대국은 군사력을 증강한다.

〈표 1〉 상호의존과 전쟁: 이론 비교

	후생	안보
통상력	자유주의 이론	무역기대이론
군사력	신맑스주의	현실주의

출처: Massimo Morelli and Tommaso Sonno, "On "Economic Interdependence and War"," *Journal of Economic Literature*, vol. 55, no. 3 (2017), p. 1085.

국제정치경제학에서는 자유주의 이론에 기반을 둔 상업적 평화와 현실주의에서 기원한 상호의존의 무기화가 대립하고 있다.⁴⁾ 상업적 평화는 자유주의적 전통에 기원을 두고 있다. 샤를 루이 드 스킵다 몽테스키외, 장 자크 루소, 이마누엘 칸트, 토마스 페인 등은 교역이 평화로 귀결된다는 고전적 자유주의 정치경제론을 제기하였다. 이 이론은 세 가지 논리로 발전하였다. 첫째는 경제적인 손익에 영향을 미치는 기회비용 문제이다. 국가 지도자가 전쟁을 계획할 때 전쟁과 평화적 해결의 기회비용을 계산할 것이다. 밀접한 교역국과 무역의 중단은 전쟁의 기회비용을 증가시킨다. 따라서 전쟁의 기회비용이 평화적 해결의 기회비용보다 더 클 경우, 국가지도자는 전쟁보다 평화적 해결을 선택할 가능성이 높다. 둘째는 전쟁을 결정하는데 활용되는 정보 문제이다. 국가 지도자는 군사력과 상대국의 의도에 대해 오판하여 전쟁의 결과를 잘못 예측할 수 있다. 무역을 활발하게 하는 국가에서는 기업과 연구소가 주요 교역국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오판을 최소화하는데 기여할 수 있다. 마지막은 정책결정의 집행 문제이다. 국가 지도자는 현재 협상 중인 평화 합의가 나중에 지켜진다는 점을 믿지 않을 수도 있다. 이런 경우에 무역에 참여하는 경제계가 공식적인 또는 비공식적인 통로를 통해 국가 고위급 지도자들 사이의 접촉, 소통, 신뢰를 증진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다.⁵⁾

⁴⁾ Erik Gartzke and Jiakun Jack Zhang, "Trade and War," in Lisa L. Martin, ed., *The Oxford Handbook of the Political Economy of International Trade*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2015), pp. 419-438.

한편, 현실주의는 경제적 상호의존이 국제정치에 미치는 영향이 단선적이지도 분명하지도 않다고 반박한다.⁶⁾ 상호의존의 무기화 개념에 따르면, 상호의존의 구조에 따라 그 효과가 다르다고 주장한다. 그 구조가 대칭적일 경우, 상호의존은 정치적으로 긍정적인 효과를 가진다. 반면, 비대칭적 구조에서는 우위를 가진 국가가 열위에 있는 국가에게 이익을 편취하고 부담을 전가할 수 있다. 모든 비대칭적 구조에서 무기화가 가능한 것은 아니다. 상호의존이 양자 관계가 아니라 네트워크 관계로 연계되어 있는 경우에만 가능하다. 또한 우회할 수 있는 통로를 제공할 수 있는 제3국의 지원이 없어야 한다.⁷⁾

가장 대표적인 비대칭적 네트워크 관계는 부채살(hub-spoke)이다. 이 부채살의 중심에 있는 강대국은 요충지(chock point) 효과와 원형감옥(panopticon) 효과를 통해 주변 국가를 통제한다. 전자는 적대국이 네트워크에 접근을 차단하는 것이다. 미국은 국제은행간전기통신협회(Society for Worldwide Interbank Financial Telecommunications: SWIFT)를 통해 러시아, 이란, 북한 등의 해외 금융거래를 제한하고 있다. 후자는 전략적으로 중요한 정보를 선제적으로 탐지하는 것이다. 미국에 있는 국제인터넷

5) David H. Bearce, "Grasping the Commercial Institutional Peace," *International Studies Quarterly*, vol. 47, no. 3 (2003), pp. 347-370; David H. Bearce and Sawa Omori, "How Do Commercial Institutions Promote Peace?" *Journal of Peace Research*, vol. 42, no. 6 (2005), pp. 659-678; 이해정, 「민주평화론의 패러독스: 칸트 평화사상의 왜곡과 오용」 『한국정치외교사논총』 제29집 2호 (2008), 129~153쪽; 김재천, 「민주평화론」 『21세기정치학회보』 제19권 2호 (2009), 363~383쪽; 이근욱, 「자유주의 이론과 안보」 『국제정치논총』 제49권 5호 (2009), 33~53쪽; 김석우, 「민주주의와 국제관계의 인과성에 관한 연구」 『한국정치외교사논총』 제32집 1호 (2011), 231~257쪽.

6) Kenneth N. Waltz, "The Myth of Interdependence," in Charles P. Kindleberger, ed., *The International Corporation* (Cambridge: MIT Press, 1970), pp. 205-223.

7) Henry Farrell and Abraham L. Newman, "Weaponized Interdependence: How Global Economic Networks Shape State Coercion," *International Security*, vol. 44, no. 1 (2019), pp. 42-79.

주소관리기구(Internet Corporation of Assigned Names and Numbers: ICANN)는 인터넷 거버넌스를 규율하고 있기 때문에 데이터의 흐름을 쉽게 감시할 수 있다.⁸⁾

〈표 2〉 상호의존의 무기화

		목 표	
		국가/적대국	경제행위자
채 널	양자	비대칭적 상호의존 (전통적 제재)	시장 권력 (시장접근 제한)
	네트워크	무기화된 상호의존 (요충지/팬옵티콘)	통제 포인트 (지불 시스템 제한)

출처: Henry Farrell and Abraham L. Newman, "Weaponized Interdependence and Networked Coercion: A Research Agenda," in Daniel W. Drezner, Henry Farrell, and Abraham L. Newman, ed., *The Uses and Abuses of Weaponized Interdependence* (Washington DC.: Brookings Institution, 2021), p. 31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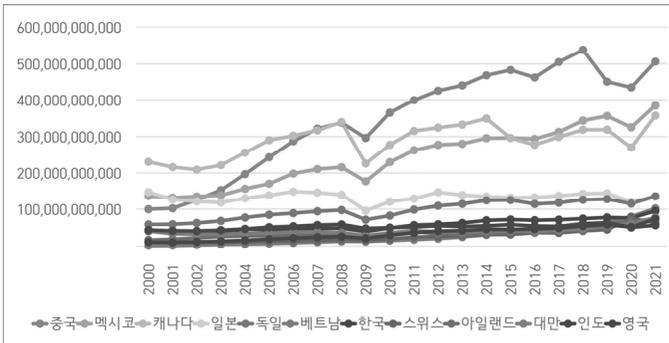
Ⅲ. 무역전쟁 이후 미중 경제관계

상업적 평화와 상호의존의 무기화를 통해 아시아 패러독스를 검증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사례는 미중 경제관계이다. 1978년 중국이 개혁개방 정책을 도입하고 미국이 대중전략을 봉쇄에서 관여로 전환하면서 미국과 중국 사이의 경제적 상호의존은 심화되어 왔다. 양국 사이 무역에 질적인 변화를 가져온 가장 중요한 계기는 2001년 중국의 세계무역기구(WTO) 가입이다. 그림 1과 2에서 알 수 있듯이, 양국 사이의 교역은 다

⁸⁾ Henry Farrell and Abraham Newman, "The Janus Face of the Liberal International Information Order: When Global Institutions are Self-Undermining," *International Organization*, vol. 75, special issue 2 (2021), pp. 333-35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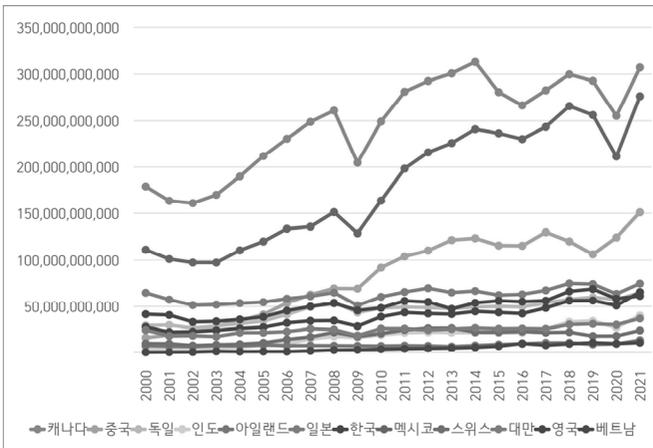
큰 국가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급증하였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 미국 경제가 침체하면서 일시적으로 감소세가 등장하였으나 2010년대 중국은 미국의 최대 수입국이자 3대 수출국으로 부상하였다.

〈그림 1〉 미국의 주요 수입국: 2000-2021년



출처: US Census, <https://usatrade.census.gov/> (검색일: 2022.7.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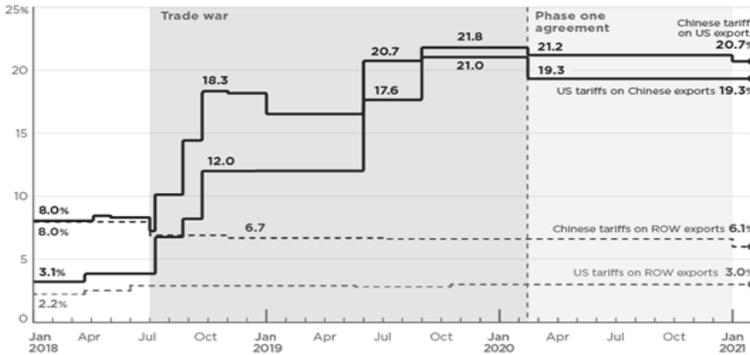
〈그림 2〉 미국의 주요 수출국: 2000-2021년



출처: US Census, <https://usatrade.census.gov/> (검색일: 2022.7.7.)

미국과 중국 사이의 전략 경쟁이 심화되면서, 경제적 상호의존의 심화는 평화가 아닌 갈등으로 이어졌다. 2018년 3월 트럼프 행정부가 중국산 수입품에 대해 보복관세를 부과하자 중국도 미국산 수입품에 보복관세를 부과하였다. 2020년 1월 1차 무역합의 이전까지 양국은 수차례 품목을 확대하고 세율도 인상하여 거의 대부분의 수입품의 가격이 인상되는 효과가 발생하였다. 당시 미국의 중국산 수입품 평균 관세는 19.3%로 중국을 제외한 국가 평균인 3%보다 무려 16.3% 높았다. 중국의 미국산 수입품 평균 관세도 21.2%로 미국을 제외한 국가 평균인 6.1%보다 15.1% 높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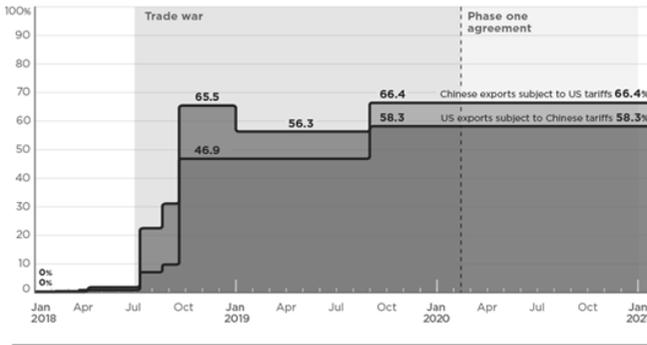
〈그림 3〉 미국과 중국의 보복관세율



출처: Chad P. Bown, “US-China Trade War Tariffs: An Up-to-Date Chart” (Peterson Institute for International Economics, 2021)

보복관세의 적용 범위도 전체 수입품의 거의 2/3에 달했다. 미국은 중국산 수입품의 66.4%, 중국은 미국산 수입품의 58.3%에 각각 보복관세를 부과하였다.

〈그림 4〉 미국과 중국의 보복관세 적용 비율



출처: Chad P. Bown, “US-China Trade War Tariffs: An Up-to-Date Chart” (Peterson Institute for International Economics, 2021)

트럼프 행정부는 보복관세 이외에도 다양한 제재를 통해 중국과 상호 의존을 축소하고 있다. 가장 먼저 등장한 제재는 상무부 산업보안국이 작성한 실체목록을 통한 수출금지이다. 제재 대상에 있는 중국기업에게 미국은 물론 제3국 기업도 미국산 제품을 수출할 수 없다. 또한 국방부는 국방수권법에 따라 화웨이와 ZTE가 생산한 중국산 통신장비를 구매하지 못하게 되었다.

금융에서도 미국의 제재는 계속 강화되고 있다. 2015년부터 환율조작 보고서를 발간해온 재무부는 외환시장 메커니즘에 부합하지 않는 위안화의 평가절하를 계속 경고하고 있다. 미국 기업의 대중 투자도 규제를 받게 되었다. 미국 연방정부와 연관된 공적연기금은 중국의 주식과 채권에 대한 투자를 제한받는다. 미국 증시에 상장된 중국 기업의 퇴출도 이뤄지고 있다. 미국 국무부는 군민융합 기업의 상장 철폐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중국으로부터 해외투자에 대한 심사와 관리도 엄격해지고 있다. 해외 투자위험검토현대화법은 중국 기업이 미국의 첨단 기업을 인수합병하기

매우 어렵게 만들었다. 외국회사문책법은 중국 기업의 회계부정을 처벌하는데 이용되고 있다. 동시에 중국 기업을 대신해 미국에 투자할 제3국 기업의 유치도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표 3〉 미국의 대중 제재

분야	정책	담당 기관
무역	보복관세	USTR
	수출금지 (실체목록)	상무부
	중국산 상품(통신장비) 구매 제한	국방부(FCC)
금융	상장철폐(중국 통신사)	국무부/증권거래소
	공적 연기금 중국기업에 투자 금지	국무부/재무부
	환율조작(반기 보고서)	재무부
투자	해외투자위험검토휘대화법	재무부
	반도체 및 배터리 제조기업 유치(한국/대만)	상무부
	외국회사문책법	PCAOB
	미국혁신경쟁법	의회에서 심의 중

출처: 이왕휘, 「글로벌 공급망 시대의 미중갈등과 통상정책의 방향」, 정대희 편, 『미중갈등 시대에 대외여건의 구조 변화와 대응방안』 (세종: 한국개발연구원, 2021), 111쪽.

중국도 미국의 압박에 맞대응하기 위해 유사한 제재를 계속 도입하고 있다. 신뢰할 수 없는 실체 목록에 대한 규정(不可靠實體清單規定)은 2019년 5월 화웨이 및 68개 자회사의 실체목록 등재에 대한 보복이다. 수출통제법(國出口管制法)은 해외투자위험검토휘대화법과 같이 기존 제도를 더욱 엄밀하고 자세하게 개정하였다. 외국인투자안전심사방법(外商投資安全審查辦法)은 외국인투자심의위원회(CFIUS)와 같이 이중용도(dual-use) 기술을 가진 기업의 인수합병을 심의한다. 외국법률·조치의 부당한 역외적용 저지방법(阻斷外國法律與措施不當域外適用辦法)과 반외국제재방법(反外國製裁法)은 미국의 이차제재를 염두에 둔 저지입법

(blocking statutes)이다. 다른 제재조치와 달리, 이 법만 명시적으로 집행되었다. 2021년 7월 미국 정부가 홍콩 주요 인사를 인권탄압 명목으로 제재하자, 중국 정부도 고위관료, 연구원, 시민단체 대표 등을 제재 대상으로 발표하였다.

〈표 4〉 중국의 대미 제재

분야	정책	담당 기관
무역	보복관세	상무부
	신뢰할 수 없는 기업 목록 규정	상무부
	반외국제재법	국무원, 외교부
	수출통제법	상무부
금융	외국법률조치의 부당한 역외적용 저지방법	상무부
	중국 통신사 지분 50% 이상 취득을 금지	재무부
	외국인투자안전심사방법	상무부, 발개위
투자	사이버보안심사방법	공업정보화부
	데이터안전관리방법	공업정보화부
	핵심정보인프라의 사이버보안법 심사	공업정보화부
	암호화법	공업정보화부

출처: 이왕휘, 「글로벌 공급망 시대의 미중갈등과 통상정책의 방향」, 정대희 편, 『미중갈등 시대에 대외여건의 구조 변화와 대응방안』, 111쪽.

무역전쟁 이후 미국은 4차 산업혁명에 필요한 첨단기술—반도체, 인공지능(AI), 빅데이터, 5세대 이동통신(5G), 사물인터넷(IoT), 안면인식, 무인항공기 등—을 보유하고 있으며 글로벌 금융 네트워크의 허브를 차지하고 있다는 이점을 활용하여 미국은 글로벌 공급망에서 중국이 가장 취약한 요충지를 강력하게 통제하고 있다. 글로벌 공급망에서 미국보다 하위에 있기 때문에 중국은 이런 미국의 공세에 속수무책으로 당하고 있는 상황이다.⁹⁾ 미국의 이차제재(secondary sanction) 위협 때문에 제3국도

미국의 대중 제재를 준수하고 있다. 만약 준수하지 않을 경우, 제3국도 중국과 유사하게 글로벌 공급에서 고립되거나 배제될 수 있기 때문이다.¹⁰⁾

상호의존을 무기화는 중국의 추격을 단기적으로 지연, 장기적으로 좌절시키는데 있다. 중국은 정부와 민간이 혼연일체가 되어 미국과 격차를 빠르게 줄이고 있다. 이런 점에서 “미국은 더 이상 글로벌 과학기술 패권국이 아니다”¹¹⁾라는 주장은 근거 없는 엄살이 아니다.

AI는 미중 격차가 가장 작은 분야로 평가되고 있다. 중국은 세계 최대 인구가 생산하는 빅데이터와 미국보다 훨씬 느슨한 개인정보 규제를 활용하여 다양한 AI 상품과 서비스를 개발하였다. 5G에서는 미국과 중국이 조만간 역전될 수 있는 가능성까지 예측되고 있다. 미국은 원천기술, 중국은 통신장비에 각각 우위를 가지고 있다. 그러나 기지국과 사용자 수에서는 미국은 중국과 경쟁할 수 없을 정도로 뒤쳐져 있다. 화웨이와 ZTE가 생산한 장비의 사용을 금지시켰지만, 어느 미국기업도 대체재를 생산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양자정보과학에서 미국이 많이 앞서 있지만, 양자통신에서 중국의 추격 속도가 빠르다. 이와 비슷하게 바이오

9) Mingtang Liu and Kellee S. Tsai, “Structural Power, Hegemony, and State Capitalism: Limits to China’s Global Economic Power,” *Politics & Society*, vol. 49, no. 2 (June 2021), pp. 235-267.

10) 최계영, 「미·중 ICT 기술패권 경쟁과 상호의존성의 무기화」 『KISDI Premium, Report』 (진천: 정보통신정책연구원, 2019); 이승주, 「경제·안보 넥서스(nexus)와 미중 전략 경쟁의 진화」 『국제정치논총』 제61집 3호 (2021), 121~156쪽; 이승주, 「세계 경제의 네트워크화와 미중 전략 경쟁: 복합 지경학의 부상」 『정치정보연구』 제24집 3호 (2021), 51~80쪽; 김양희, 「일본의 수출규제 강화에 대응한 한국의 ‘탈일본화’에 관한 시론적 고찰」 『일본비평』 제24권 (2021), 20~51쪽.

11) Graham Allison, Kevin Klyman, Karina Barbesino, and Hugo Yen, *The Great Tech Rivalry: China vs the U.S.* (Cambridge: Belfer Center for Science and International Affairs, Harvard Kennedy School, 2021), p. 4.

에서도 미국이 전반적으로 선도하고 있지만, 유전자 편집과 세포치료에서 중국이 큰 성과를 거두고 있다. 이런 성과를 바탕으로 중국은 첨단기술의 표준화를 선도하기 위해 2018년에 발표한 ‘중국표준(中國標準) 2035’을 구체화하고 있다.

중국은 미국의 평가에서 “중국의 과학기술 실력이 심각하게 과장되어 있다”¹²⁾고 생각한다. 정보통신기술, AI, 항공우주에서 미국을 따라가고 있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중국이 추월할 정도는 아니라는 것이다. 특히 인재 육성, 기술 표준, 특허의 질에서 중국이 미국 수준에 도달하기에는 엄청난 노력과 시간이 요구된다.

중국의 가장 큰 취약점은 연구개발에 있다. 세계의 공장으로서 중국은 많은 첨단제품을 생산하고 있다. 그러나 거의 대부분의 제품에 들어 있는 핵심 특허는 미국 기업과 연구기관이 가지고 있다. 구글의 안드로이드에 대안으로 화웨이가 개발한 홍명은 대부분의 중국기업이 사용하지 않는 운영체제로 남아 있다. 안면인식에서 중국기업의 약진은 기술적 우월성보다는 제도적 이점—미국보다 느슨한 사생활 보호—에서 기인한다고 할 수 있다. 항공우주에서도 차이는 여전히 크다. 중국은 정부와 국영기업이 중심적인 역할을 하는 반면 미국에서는 테슬라와 아마존 같은 민간기업이 독자적으로 위성을 발사하는 수준에 도달하였다.

현재 미국이 중국을 확실히 압도하는 분야는 반도체이다. 미국의 반도체 생산에 필요한 소프트웨어와 제작 장비를 사실상 독점하고 있다. 범용 반도체 생산량에서 중국이 미국을 앞서지만, 첨단 반도체의 설계와 생산에 미국기업의 특허가 필수적이다. 이 때문에 미국의 반도체 제재는 중국뿐만 아니라 한국, 대만, 일본, 네덜란드 등에도 결정적 영향을 미치

12) 北京大學國際戰略研究院課題組, 技術領域的中美戰略競爭: 分析與展望, 國際戰略研究簡報, 第123期 (北京大學國際戰略研究院, 2022).

고 있다.¹³⁾

〈표 5〉 반도체 제재: 미국 수출규제분류번호(ECCNs)

설계	재료	생산	검사	결합 및 최종 사용
수출 통제 분류 번호	반도체 설계/개발 기술 3E003,b	플루오르화 수소 1C350d,1	반도체 생산 기술 3E003,d	최종 사용 결정 대량판매 시장
		플루오르화 폴리이미드 1C009,b	반도체 제조 장비 3D991	상품 대 비민간 목적 최소허용보조 고려
소프트웨어	반도체설계용 컴퓨터 이용 디자인 소프트웨어 3D003	포토레지스트 3C002,a	또는 3D001 반도체 생산 및 제조 장비 3B001	대량판매 시장 소프트웨어 5D992,c
			반도체 생산용 소프트웨어 3D001	3B001,a to ,f, or 3B002.에 의해 통제되는 장비용 '특별설계'소프트 트웨어 3D002 9D610

출처: Alex Capri, "Semiconductors at the Heart of the US-China Tech War" (Henrich Foundation, 2020), p. 43.

반도체는 첨단산업은 물론 첨단무기에도 필수적인 제품이라는 점에서 미국의 대중 수출통제는 글로벌 공급망에서 중국의 영향력을 제어하는 아주 효과적인 수단이다. ¹⁴⁾ 미국이 반도체 장비시장의 50% 이상을 차지하기 때문에 미국의 제재를 중국기업이 단기간에 회피·우회하는 것은

¹³⁾ Chad P. Bown, "How the United States Marched the Semiconductor Industry into its Trade War with China," *Working Paper No.20-16* (Peterson Institute for International Economics, 2020).

¹⁴⁾ White House, *Building Resilient Supply Chains, Revitalizing American Manufacturing, and Fostering Broad-Based Growth: 100-Day Reviews under Executive Order 14017* (2021).

사실상 불가능하다. 중국 최대의 파운드리인 SMIC까지 자발적으로 규제를 준수하겠다는 입장을 표명하였을 정도였다. 미국은 첨단반도체의 생산에 필수적인 ASML의 EUV 노광기 수출을 강력하게 금지하고 있다. 이 제재가 유지되는 한, 중국이 첨단반도체를 양산하는 것은 당분간 어려울 것이다.

IV.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 대 쌍순환

무역전쟁 이후 미국의 탈동조화 전략은 인도태평양전략을 통해 구현되고 있다. 이 전략의 기원은 일본에 있으나, 체계적으로 발전시킨 것은 트럼프 행정부라고 할 수 있다. 이 전략의 핵심 기제는 미국, 일본, 호주, 인도로 구성된 4자안보대화(Quadrilateral Security Dialogue: QUAD)이다. 미국은 이 협의회를 중심으로 동맹국(한국, 태국)과 동반국(대만, 필리핀)까지 포함하는 안보 네트워크를 구축하고자 한다.¹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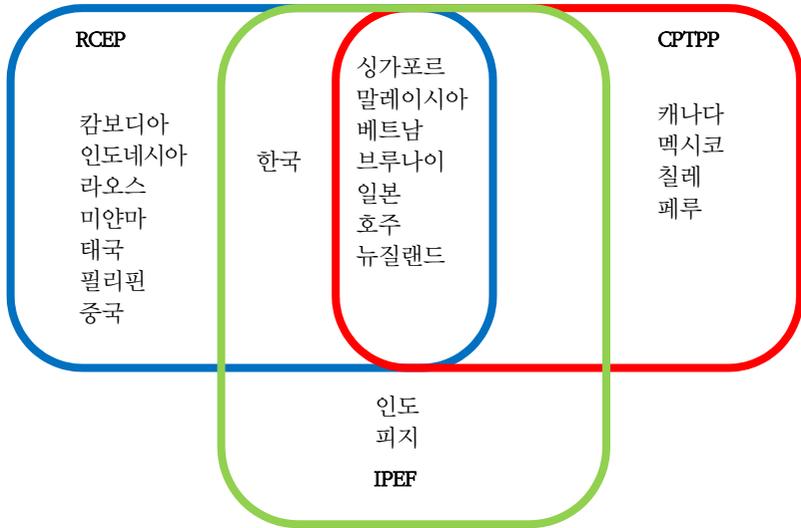
바이든 행정부는 인도태평양전략을 확대·강화하고 있다. 중국의 대외 팽창을 억제하기 위해서는 이 지역에 대한 미국의 영향력을 증진시켜야 한다는 것이다.¹⁶⁾ 이런 배경에서 미국은 2021년 7월 영국, 호주와 군사협력의 수준을 높이는 오키스(AUKUS) 조약을 체결하였다. 바이든 대통령은 2022년 5월 IPEF를 출범시켰다. 기본적으로 IPEF는 트럼프 행정

¹⁵⁾ US Department of Defense, *Indo-Pacific Strategy: Preparedness, Partnerships, and Promoting a Networked Region* (2019); US Department of State, *A Free and Open Indo-Pacific: Advancing a Shared Vision* (2019); White House, *Indo-Pacific Strategy of the United States* (2022).

¹⁶⁾ White House, *Interim National Security Strategy Guidance* (2021).

부가 추진했던 경제번영네트워크(EPN·Economic Prosperity Network)와 같이 중국이 배제된 경제협의체를 지향하고 있다.¹⁷⁾

〈그림 5〉 RCEP, CPTPP,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 회원국 비교



출처: 저자 작성

바이든 행정부가 트럼프 행정부가 탈퇴했던 CPTPP에 복귀하지 않고 새로운 협의를체를 구성하는 이유는 크게 세 가지이다. 첫째, 미국 내에서 보호주의가 확산되어, 의회에서 CPTPP 가입을 비준할 가능성이 높지 않다. 둘째, 바이든 대통령이 공약으로 내세운 중산층 중심의 대외경제정책의 기초에 CPTPP가 부합하지 않는다. 마지막으로 중국이 2021년 9월 CPTPP에 가입을 신청하였다. 만약 중국이 가입하게 되면 중국을 고립시킨다는 TPP의 본래 목적이 상실되기 때문이다.¹⁸⁾

¹⁷⁾ Antony J. Blinken, “A Free and Open Indo-Pacific, Speech at Universitas Indonesia” (Jakarta: December 14, 2021).

인도태평양전략에 대응하기 위해 중국은 2020년부터 쌍순환 전략을 추구하고 있다. 무역전쟁을 해결하기 위한 고위급 회담에서 트럼프 행정부는 시진핑 정부에게 중국제조(中国制造)2025로 대표되는 산업정책을 포기하라고 압박하였다. 이에 시진핑 정부는 국내대순환을 위주로 국제대순환을 추진하는 이 전략을 제안한 것이다. 얼핏 보기에 이 전략의 핵심이 국내대순환에 있기 때문에 국제대순환이 경시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국제대순환이 결코 과소평가될 수 없다. 왜냐하면 미국의 중국 봉쇄를 뚫고 나가기 위해서는 중국도 공급망을 자국 위주로 재편해야 하기 때문이다.¹⁹⁾

무역전쟁 이후 중국의 공급망 전략은 전 세계보다는 지역 내에서 우위를 확보하는 것으로 변화하였다. 미국의 탈동조화와 상호의존의 무기화가 강력하며 유럽의 미국 동맹국들도 미국의 입장에 경사하고 있기 때문에, 중국이 글로벌 공급망에서 미국과 동등하게 경쟁할 수 없는 상황이다. 따라서 중국은 공급망에서 위에 있는 한국, 일본—정치적 이유로 언급하지 않았지만 대만—과 밑에 있는 동남아시아국가들과 연계를 더욱 강화한다면, 역내에서 미국의 도전을 어느 정도 극복하고자 하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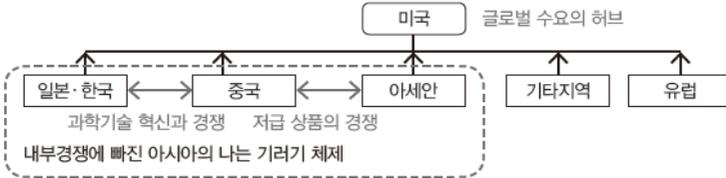
18) Matthew P. Goodman and William Reinsch, “Filling In the Indo-Pacific Economic Framework” (Center for Strategic and International Studies, 2022).

19) Françoise Huang, “Dual Circulation: China’s Way of Reshoring?” (Allianz, 2020); Chi Hung Kwan, ““Dual Circulation” as China’s New Development Strategy: Toward a Virtuous Cycle between Domestic and International Circulations” (Research Institute of Economy, Trade and Industry, 202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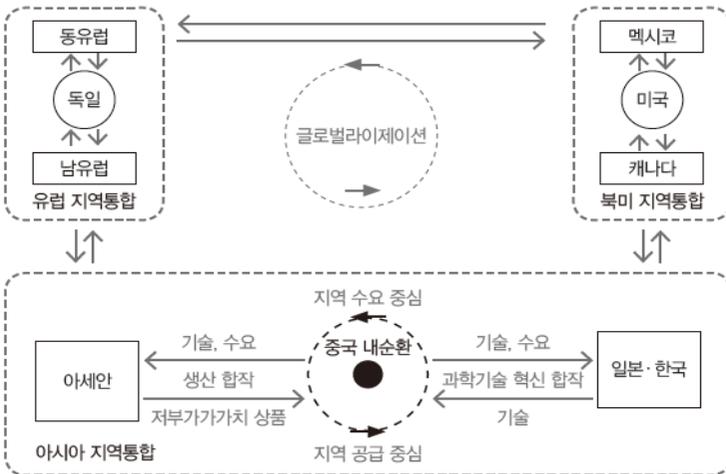
〈그림 6〉 중국의 쌍순환 전략

중국 쌍순환과 글로벌라이제이션의 새로운 라운드

지구화의 지난 라운드 국면: “세계는 평평하다”



지구화의 새로운 국면: “다원적 구조”



출처: 程實·錢智俊, 「內外循環演進的順勢之道與製勝之基」 『FT中文網』 (2020年 9月 23日).

V. 미국과 중국의 경제적 상호의존에 미친 영향

트럼프 행정부와 바이든 행정부는 중국과 탈동조화를 위한 보복관세, 수출통제, 수입금지, 투자제한, 기술협력 통제 등 다양한 정책을 동원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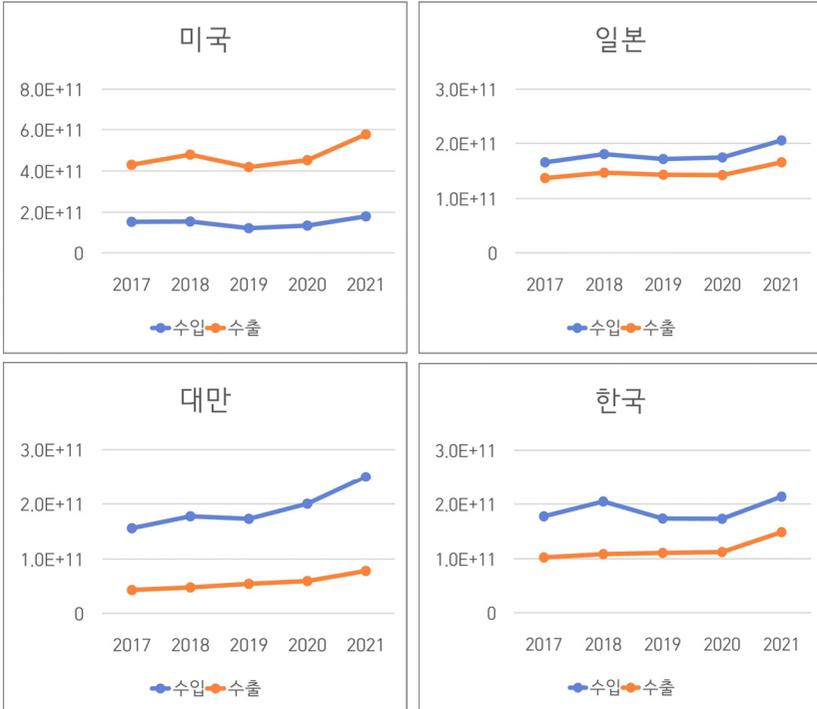
였다. 이뿐만 아니라 미국은 인도태평양전략을 통해 동맹국과 동반국에게도 중국과 경제 교류를 축소하라는 압력을 행사하였다. 이런 노력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대중 무역은 크게 감소하지 않았다. 보복관세의 효과가 나타나기 시작했던 2019년에는 수출과 수입 모두 하락하였다. 2020년 1월 코로나 19 위기가 발생한 이후의 감소폭은 관세보다는 봉쇄로 인한 제조업 중단에 더 큰 영향을 받았다. 위기가 어느 정도 안정되어 생산과 소비가 다시 회복된 2020년 하반기부터 교역량은 빠르게 증가하였다. 2021년에는 전년 대비 미국의 대중 수출 증가폭(32.7%)이 중국의 대미 수출 증가폭(27.5%)보다 높았으며, 무역전쟁의 주요 원인인 미국의 대중 무역적자가 전년 대비 25.1% 증가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중국이 2년 동안 2,000억 달러 규모의 미국산 제품을 구매하기로 약속했던 2020년 1월 1단계 무역합의의 목표치의 2/3(미국 수출 기준 60%, 중국 수입 기준 62%)에 훨씬 못미치는 것이었다.²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이든 행정부는 합의를 이행하라고 압박하지 못했으며 2단계 협상에 대한 언급도 없었다. 그 이유는 미국의 인플레이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중국 이외의 대안이 없기 때문이다. 더 나아가 2022년 들어서는 인플레이션을 억제하기 위해 대중 관세를 전면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까지 제기되었다.²¹⁾ 일본·한국·대만에서도 이런 추세가 나타났다. 중국과 가장 치열하게 대립하고 있는 대만의 경우에는 오히려 수출이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였다.

²⁰⁾ Chad P. Bown, "US-China Phase One Tracker: China's Purchases of US Goods," Peterson Institute for International Economics (2022).

²¹⁾ Lawrence H. Summers, "Trade Barrier Reduction is the Most Important Anti-inflation Competition Policy," Peterson Institute for International Economics (2022).

〈그림 7〉 미국 · 일본 · 한국 · 대만의 대중 상품 수출입 통계: 2017~2021년



* 대만은 UN 회원국이 아니라 기타 아시아(Other Asia, not elsewhere specified)로 분류되어 있음²²⁾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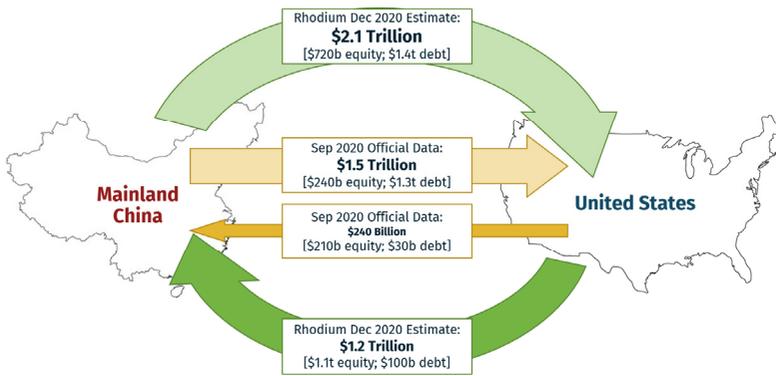
출처: UN Comtrade, <https://comtrade.un.org/data> (검색일: 2022.7.7.)

미국과 중국의 금융거래도 무역과 크게 다르지 않게 증가하는 추세를 보여주었다. 중국은 대미 무역흑자의 절반 이상을 미국 국채를 구매하는 데 사용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미국 재무부 통계는 중국의 기관투자자가 공식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금액을 합산한 것이다. 여기에는 중국과

²²⁾ UN Comtrade, Taiwan, Province of China Trade data, <https://unstats.un.org/wiki/display/comtrade/Taiwan%2C+Province+of+China+Trade+data> (검색일: 2022.7.7.)

미국 기업이 조세회피처를 통한 거래가 포함되어 있지 않는다. 이런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로디엄그룹은 실질적으로 투자한 금액을 추정한 통계를 대안으로 제시하였다. 20020년 말 기준으로 중국의 대미 투자가 미국의 대중 투자보다 약 2배 이상 많은 것으로 추산된다.

〈그림 8〉 중국의 대미 및 미국의 대중 금융 거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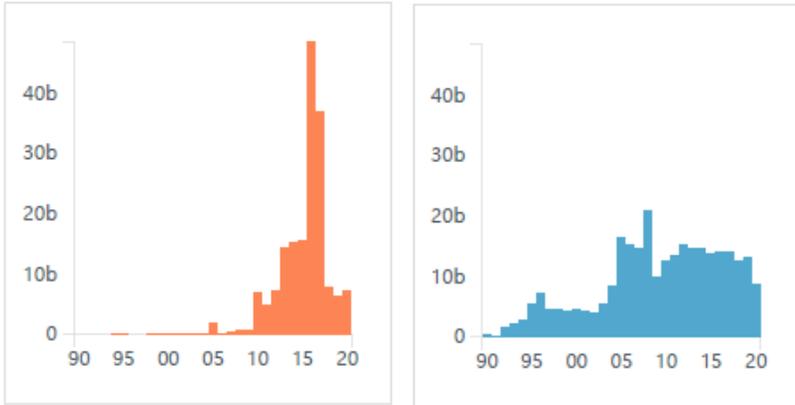


출처: Adam Lysenko, Mark Witzke, Thilo Hanemann, and Daniel H. Rosen, “US-China Financial Investment: Current Scope and Future Potential” (Rodium Group, 2022).

해외직접투자(FDI)의 경우에는 미국이 중국보다는 더 많다. 중국은 2010년대 미국에 대한 투자를 공세적으로 진행하였다. 트럼프 행정부가 등장한 이후 투자 심사를 엄격하게 진행함으로써 중국의 대미 투자가 급감하였다. 반면, 미국의 대중 투자자는 큰 변동 없이 꾸준히 이뤄지고 있다. 즉 중국은 미국의 투자를 계속 장려하고 있다.²³⁾

²³⁾ Thilo Hanemann, Mark Witzke, Charlie Vest, Lauren Dudley, and Ryan Featherston, “An Outbound Investment Screening Regime for the United States?” (Rodium Group, 2022).

〈그림 9〉 중국의 대미 및 미국의 대중 FDI



출처: US-China Investment, <https://www.us-china-investment.org/> (검색일: 2022.7.7)

무역전쟁에도 불구하고 미중 사이의 탈동조화는 거의 진행되지 않았다. 무역에서는 2019년 잠시 줄어들었다가 2020년 무역 위기 전 수준을 회복하였다. 금융거래는 계속 증가하고 있다. 투자의 경우 미국과 중국 사이에 큰 차이가 있다. 중국의 대미 투자가 급속하게 준 반면, 미국의 대중 투자는 큰 변화가 없었다. 따라서 인도태평양전략이 미중 경제관계에 미친 영향은 아직까지 거의 없다고 평가할 수 있다.

상호의존의 무기화가 미친 영향도 분명하지 않다. 따라서 무기화의 영향을 측정하기 위해서는 수출통제 상품의 교역을 검토해야 한다. 반도체의 핵심은 무역 거래 상품의 종류를 분류해 놓은 HS코드(Harmonized System code)에서 전자집적회로(85.42)이다. 여기에는 프로세서와 컨트롤러(8542.31), 메모리(8542.32), 증폭기(8542.33), 8542.39(기타) 및 부분품(8542.90)이 포함되어 있다.²⁴⁾

²⁴⁾ 관세법령정보포털, <https://unipass.customs.go.kr/clip/index.do> (검색일: 2022.7.7)

한국을 제외한 미국·일본·한국·대만의 전자집적회로 대중 수출은 계속 증가하였다. 주목해야 될 점은 중국과 가장 심각한 안보갈등에 처해 있는 대만 사례이다. 대만해협을 둘러싼 긴장이 고조되는 상황에서도 대만은 역대 최대 대중 수출액을 기록하였다. 이런 결과는 10나노미터 이하 최첨단 반도체의 92%를 생산하는 세계 최대 파운드리인 TSMC를 대체할 수 있는 수입원이 없다는 사실에서 기인한다.

한국만 2018~19년 감소한 이유는 주력 수출품인 D-램 가격의 하락으로 설명될 수 있다. D램익스체인지가 발표하는 디램익스체인지 지수(DRAM eXchange Index)가 2018년 6월 8.19에서 2019년 7월 2.94까지 하락하였다. 이러한 가격 급락 때문에 대중 전자직접회로 수출액이 감소한 것이다.²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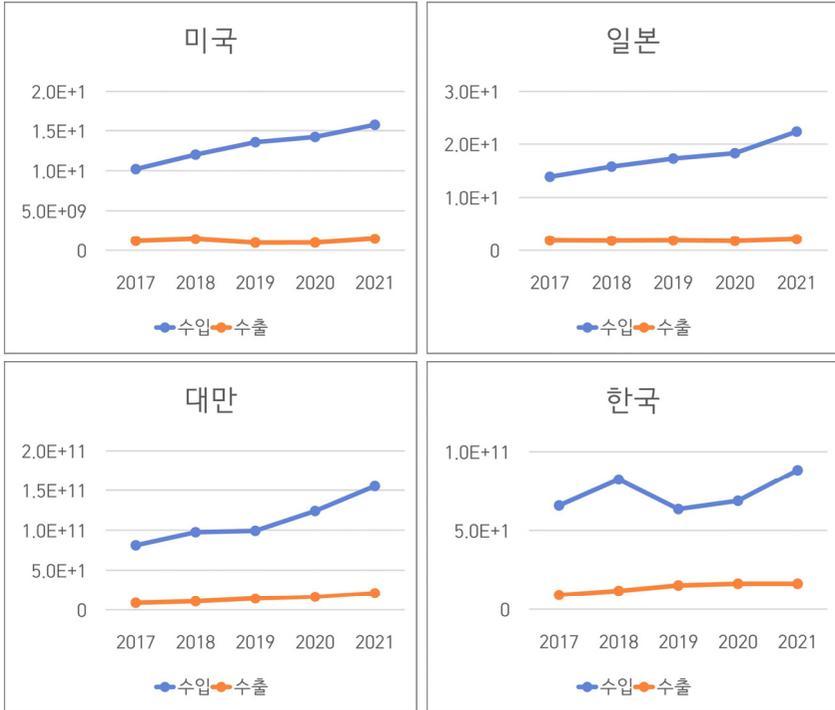
현재까지 반도체 공급망에 대한 상호의존의 무기화는 현재까지 기대한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고 있다. 가장 중요한 이유는 글로벌 공급망이 중국을 중심으로 편성되어 있는 사실에 있다. 중국은 전 세계 반도체 생산량의 약 60%를 수입하여 각종 전자제품을 생산하고 있다. 이 중 절반은 중국 내에서 최종 소비되며, 나머지는 해외로 재수출된다.²⁶⁾ 그다음으로 주의해야 점은 미국의 반도체 수출통제가 화웨이와 ZTE에 집중되어 있다는 사실이다. 최첨단 반도체가 사용되는 5G 스마트폰의 경우 매출이 급감하였으나 범용 반도체로 충분한 통신장비에서는 큰 타격을 입지 않았다.²⁷⁾ 이 두 기업을 제외한 다른 중국기업은 대만의 최첨단 반도체를 수입하는 데 어떤 제한을 받고 있지 않아, 화웨이가 상실한 점유율

25) 김영민, 「진짜 실력 나온다던 삼성, D램 폭락에도 “감산 안한다”」 『중앙일보』 2019년 7월 31일.

26) Semiconductor Industry Association and Boston Consulting Group, *Strengthening the Global Semiconductor Supply Chain* (2021).

27) Evelyn Cheng, 「Huawei Expects 2021 Revenue to Drop by 28.9% as Sanctions Drag on」 『CNBC』 (December 30, 2021).

〈그림 10〉 미국 · 일본 · 한국 · 대만의
대중 전자직접회로(HS 8542) 수출입 통계: 2017~2021년



출처: UN Comtrade, <https://comtrade.un.org/data> (검색일: 2022.7.7)

을 샤오미, 비보, 오포 등이 차지하였다. 따라서 미국 · 일본 · 한국 · 대만 기업은 미국의 제재를 받고 있는 기업을 제외한 나머지 중국 기업에 대한 수출을 계속 늘고 있다. 이런 구조가 유지되는 한 미국의 반도체 수출 통제는 강력한 제재로 간주되지 않을 것이다.

Ⅵ. 맺음말

이 논문은 무역전쟁 이후 아시아 패러독스의 변화 가능성을 분석하였다. 미중 패권경쟁이 치열하게 전개되면서 탈냉전기의 경제와 안보가 괴리가 약화되고 경제-안보 연계가 강화되어 아시아 패러독스가 해소될 것이라는 전망이 제기되었다. 미중 무역전쟁 이후 상호의존의 무기화는 경제가 안보에 종속되는 방식으로 아시아 패러독스가 해결될 것이라는 예측을 가능하게 만들었다. 경제적 상호의존 구조에서 미국이 중국보다 우월하기 때문에 미국은 반도체 수출통제를 통해 중국을 압박하였다. 세계의 공장으로서 공급망의 허브로 도약하였지만, 중국은 과학기술 격차 때문에 미국의 수출통제에 맞대응하지 못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제적 상호의존이 심화되면 평화가 촉진된다는 상업적 평화론이 완전히 부정된 것은 아니다. 미국이 IPEF를 추진하고 중국이 쌍순환 전략으로 대응하고 있지만, 제조업 전체 교역은 물론 반도체 교역을 감소되지 않았다. 반대로 미국은 물론 동맹국인 일본과 한국, 동반국인 대만 모두 중국과 교역이 증가하였다. 물론 무역전쟁의 정점인 2019년 전체 무역은 일시적으로 감소하였다가 코로나 19 위기가 시작된 2020년부터 다시 증가하였다. 특히 중국의 불공정 무역관행과 대규모 무역적자 문제가 시정되지 않았지만, 미국의 대중 무역, 투자, 금융거래는 크게 변동하지 않았다.

아시아 패러독스가 무역전쟁 이후에도 해소되지 않고 있다는 사실은 보면, 경제-안보 연계의 작동 메커니즘이 상업적 평화론과 상호의존의 무기화가 가정하는 것처럼 단선적이지도 일방적이지도 않다는 점을 알 수 있다. 즉 안보관계가 악화된다고 해서 반드시 경제적 상호의존이 축소되는 것은 아니며, 역으로 경제관계가 심화된다고 해서 안보관계가 반

드시 개선되는 것도 아니다. 따라서 이 패러독스의 변화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어떤 조건에서 이 메커니즘이 작동하는지 또 이와 반대로 어떤 조건에서는 작동하지 않는지에 구체적 분석이 필요하다. 여기에는 경제적 변수 이외에 국가 지도자의 역할, 국내 정치사회적 조건 및 강대국 사이의 전략적 상호작용을 포함하는 정치적 변수에 대한 분석이 추가되어야 한다. 그렇게 할 때만이 상호의존의 다양한 정치적 결과를 종합적으로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

■ 접수: 2022년 10월 13일 / 심사: 2022년 11월 25일 / 게재 확정: 2022년 12월 1일

【참고문헌】

- Allison, Graham, Kevin Klyman, Karina Barbesino, and Hugo Yen, *The Great Tech Rivalry: China vs the U.S.*, Cambridge: Belfer Center for Science and International Affairs, Harvard Kennedy School, 2021.
- Asian Development Bank, *Global Value Chain Development Report 2021: Beyond Production*, 2021.
- Goldstein, Averyand Edward D. Mansfield, *The Nexus of Economics, Security, and International Relations in East Asia*, Stanford: Stanford University Press, 2012.
- Mandelbaum, Michael, *The Rise and Fall of Peace on Earth*,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2021.
- Pempel, T. J. ed., *The Economy-Security Nexus in Northeast Asia*, London: Routledge, 2013.
- Semiconductor Industry Association and Boston Consulting Group, *Strengthening the Global Semiconductor Supply Chain*, 2021.
- US Department of Defense, *Indo-Pacific Strategy: Preparedness, Partnerships, and Promoting a Networked Region*, 2019.
- US Department of State, *A Free and Open Indo-Pacific: Advancing a Shared Vision*, 2019.
- White House, *Building Resilient Supply Chains, Revitalizing American Manufacturing, and Fostering Broad-Based Growth: 100-Day Reviews under Executive Order 14017*, 2021.
- _____, *Indo-Pacific Strategy of the United States*, 2022.
- _____, *Interim National Security Strategy Guidance*, 2021.
- Zhang, Jiakun Jack, *Is China an Exception to the Commercial Peace?*, PhD Dissertation, UC San Diego, 2018.
- 김기석, 「경제안보연계분석: 동아시아에 대한 적실성의 점검」 『한국과 국제정치』 제33권 2호, 2017, 1~34쪽.
- 김석우, 「민주주의와 국제관계의 인과성에 관한 연구」 『한국정치외교사논총』 제32권 1호, 2011, 231~257쪽.

- 김양희, 「일본의 수출규제 강화에 대응한 한국의 '탈일본화'에 관한 시론적 고찰」 『일본비평』 제24권, 2021, 20~51쪽.
- 김재천, 「민주평화론」 『21세기정치학회보』 제19권 2호, 2009, 363~383쪽.
- 이근욱, 「자유주의 이론과 안보」 『국제정치논총』 제49권 5호, 2009, 33~53쪽.
- 이승주, 「아시아 패러독스(Asia Paradox)를 넘어서: 경제적 상호의존과 제도화의 관계에 대한 비판적 검토」 『한국정치외교사논총』 제36권 2호, 2015, 167~198쪽.
- _____, 「경제·안보 넥서스(nexus)와 미중 전략 경쟁의 진화」 『국제정치논총』 제61권 3호, 2021, 121~156쪽.
- _____, 「세계 경제의 네트워크화와 미중 전략 경쟁: 복합 지정학의 부상」 『정치정보연구』 제24권 3호, 2021, 51~80쪽.
- 이왕휘, 「글로벌 공급망 시대의 미중갈등과 통상정책의 방향」, 정대희 편, 『미중갈등 시대에 대외여건의 구조 변화와 대응방안』, 세종: 한국개발연구원, 2021, 84~128쪽.
- 이혜정, 「민주평화론의 패러독스: 칸트 평화사상의 왜곡과 오용」 『한국정치외교사논총』 제29권 2호, 2008, 129~153쪽.
- 정성철, 「아시아 패러독스?: 동아시아 경제협력과 안보갈등」 『세계정치』 제21권, 2014, 19~52쪽.
- 최계영, 「미·중 ICT 기술패권 경쟁과 상호의존성의 무기화」 『KISDI Premium, Report』, 진천: 정보통신정책연구원, 2019.
- 北京大學國際戰略研究院課題組. 技術領域的中美戰略競爭: 分析與展望, 國際戰略研究簡報, 第123期, 北京大學國際戰略研究院, 2022.
- Bearce, David H., "Grasping the Commercial Institutional Peace," *International Studies Quarterly*, vol. 47, no. 3 (2003), pp. 347-370.
- Bearce, David H. and Sawa Omori, "How Do Commercial Institutions Promote Peace?" *Journal of Peace Research*, vol. 42, no. 6 (2005), pp. 659-678.
- Blinken, Antony J., "A Free and Open Indo-Pacific, Speech at Universitas Indonesia" (Jakarta: December 14, 2021).
- Bown, Chad P., "How the United States Marched the Semiconductor Industry into its Trade War with China," *Working Paper* No.20-16 (Peterson Institute for

- International Economics, 2020).
- Bown, Chad P., “US-China Trade War Tariffs: An Up-to-Date Chart” (Peterson Institute for International Economics, 2021).
- _____, “US-China Phase One Tracker: China’s Purchases of US Goods” (Peterson Institute for International Economics, 2022).
- Capri, Alex, “Semiconductors at the Heart of the US-China Tech War” (Henrich Foundation, 2020).
- Choi, Joung Kun, “Crisis Stability or General Stability? Assessing Northeast Asia’s Absence of War and Prospects for Liberal Transition,” *Review of International Studies*, vol. 42 (2016), pp. 287-309.
- Farrell, Henry and Abraham L. Newman, “Weaponized Interdependence and Networked Coercion: A Research Agenda,” in Daniel W. Drezner, Henry Farrell, and Abraham L. Newman, ed., *The Uses and Abuses of Weaponized Interdependence*, Washington DC.: Brookings Institution, 2021, pp. 305-322.
- Farrell, Henry and Abraham L. Newman, “Weaponized Interdependence: How Global Economic Networks Shape State Coercion,” *International Security*, vol. 44, no. 1 (2019), pp. 42-79.
- _____, “The Janus Face of the Liberal International Information Order: When Global Institutions are Self-Undermining,” *International Organization*, vol. 75, special issue 2 (2021), pp. 333-358.
- Gartzke, Erik and Jiakun Jack Zhang. “Trade and War,” in Lisa L. Martin, ed., *The Oxford Handbook of the Political Economy of International Trade*,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2015, pp. 419-438.
- Goodman, Matthew P. and William Reinsch, “Filling In the Indo-Pacific Economic Framework” (Center for Strategic and International Studies, 2022).
- Kwan, Chi Hung, ““Dual Circulation” as China’s New Development Strategy: Toward a Virtuous Cycle between Domestic and International Circulations” (Research Institute of Economy, Trade and Industry, 2021).
- Hanemann, Thilo, Mark Witzke, Charlie Vest, Lauren Dudley, and Ryan Featherston, “An Outbound Investment Screening Regime for the United States?” (Rodium Group, 2022).

- Huang, Françoise, "Dual Circulation: China's Way of Reshoring?" (Allianz, 2020).
- Liu, Mingtan and Kellee S. Tsai, "Structural Power, Hegemony, and State Capitalism: Limits to China's Global Economic Power," *Politics & Society*, vol. 49, no. 2 (June 2021), pp. 235-267.
- Lysenko, Adam, Mark Witzke, Thilo Hanemann, and Daniel H. Rosen, "US-China Financial Investment: Current Scope and Future Potential" (Rodium Group, 2022).
- Manning, Robert, "The Asian Paradox: Toward a New Architecture," *World Policy Journal*, vol. 10, no. 3 (1993), pp. 55-64.
- Morelli, Massimo and Tommaso Sonno, "On "Economic Interdependence and War"," *Journal of Economic Literature*, vol. 55, no. 3 (2017), p. 1085.
- Summers, Lawrence H., "Trade Barrier Reduction is the Most Important Anti-inflation Competition Policy," Peterson Institute for International Economics (2022)
- Waltz, Kenneth N., "The Myth of Interdependence," in Charles P. Kindleberger, ed., *The International Corporation*, Cambridge: MIT Press, 1970, pp. 205-223.
- 김영민. 「진짜 실력 나온다'던 삼성, D램 폭락에도 "감산 안한다"」 『중앙일보』 2019년 7월 31일.
- 程實·錢智俊. 「內外循環演進的順勢之道與製勝之基」 『FT中文網』 (2020年 9月 23日).
- Cheng, Evelyn. 「Huawei Expects 2021 Revenue to Drop by 28.9% as Sanctions Drag on」 『CNBC』 (December 30, 2021).
- UN Comtrade, Taiwan, Province of China Trade data, <https://unstats.un.org/wiki/display/comtrade/Taiwan%2C+Province+of+China+Trade+data> (검색일: 2022.7.7.)
- US Census, <https://usatrade.census.gov/> (검색일: 2022.7.7.)
- US-China Investment, <https://www.us-china-investment.org/> (검색일: 2022.7.7)
- 관세법령정보포털, <https://unipass.customs.go.kr/clip/index.do> (검색일: 2022.7.7.)

The Asian Paradox and the Indo-Pacific Strategy : Commercial Peace vs. Weaponized Interdependence

Lee, Wang Hwi (Ajou University)

Abstract

From the perspective of economic-security links, this paper examines the Asian Paradox, in which geopolitical conflicts are not resolved despite the increasing economic interdependence. Commercial peace theory explains that deepening economic interdependence promotes peace. According to this logic, the Asian Paradox is resolved in a way in which the economy prevails security. Realism, on the other hand, refutes that interdependence may amplify conflict. In this case, the Asian Paradox will be resolved in a way in which the economy is subordinate to security. After the outbreak of the trade war in 2018, the United States made use of heavy interdependence and imposed various economic sanctions on China. Despite the weaponization of interdependence, such as export controls on semiconductor and restrictions on access to the international financial payment networks, trade and investment between the U.S. and China have not decreased. Exports of the United States, Japan, Korea, and Taiwan to China showed an increase, not a decline. Semiconductor exports, a key indicator of weaponized interdependence, are also on the rise. Given that the effect of the U.S.-China strategic competition on trade and investment is limited, at least

so far, the Asian Paradox is expected to remain.

Keywords: Security-Economy Nexus, Commercial Peace, Weaponization of Interdependence, US-China Competition, Indo-Pacific Economic Framework

이왕희 (Lee, Wang Hwi)

서울대학교에서 학사 및 석사를 받았고 영국 런던정경대(LSE)에서 국제정치학 박사 학위를 받았다. 핵심 연구분야는 동아시아 정치경제와 미중 전략경쟁이며, 현재 아주대학교에서 국제정치경제를 가르치고 있다.